

# 제28회 광주미술상에 유지원 작가

‘가치의 재구성’ 바탕 설치 작업  
1천만 원 창작금...개인전 지원도  
특별상 회화 김미애·김영일 작가



제28회광주미술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오건택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일, 유지원, 오건택 이사장, 김미애 작가.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 제공

올해 제28회 광주미술상에 유지원 작가(39·입체조형과 복합매체설치작업)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별상은 김미애(39·회화)와 김영일(43·회화) 2인에게 주어졌다.

(사)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이사장 오건택)는 최근 광주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동구 미로센터에서 이와 같이 수상자를 선정, 시상식을 가졌다.

지난 1995년부터 매년 시행된 광주미술상은 지역의 역량 있는 청년작가들의 창작활동을 북돋우기 위해 원로·중견 미술인들이 기획한 미술 활성화 사업으로,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2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미술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공모에는 모두 15명이 응모했으며, 예비심사를 거쳐 압축된 3배수의 후보들이 본심사에 참여해 자신의 활동 및 작품세계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유지원 작가는 전북 순창 출생으로 광주예술고등학교와 조선대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했다. 일본 도쿄에서 2년 동안 체류, 프랑스로 건너가 안시 국립예술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약 8년간 체류하다 지난 2019년 광주로 돌아와 꾸준히 창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 작가는 “‘가치의 재구성’이라는 주제 아래 사회 안에서 버려지거나 무시돼 온 공간, 장소, 오

브제와 존재 또는 기억과 역사의 흔적을 바탕으로 조각, 설치, 영상 작업을 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장식적 가치’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시공간 안에서 반복되는 생성과 소멸을 건축적 이미지들을 차용해 표현하거나 이를 재구성, 재해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개인이나 집단의 기억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가치, 또는 흔적들을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특별상을 수상한 김미애 작가는 현대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에 관한 관점들을 환기시키는 회화작업들을 주로 해 왔다. 특히 그녀는 키치하면서도 팝아트적인 작품들을 통해 이를 풍자하며 당당하고 활기찬 여성들의 모습을 화폭 안에

담아낸다. 김영일 작가 또한 ‘망각·도시생활’을 주제로 마네킹이나 우리가 흔히 소비하는 상품들을 사실적인 팝아트 형식으로 그려낸다. 그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타인의 시점으로 판단되는 나 자신과 자신을 중심으로 사회를 인식하는 현대인들의 현상과 실체를 조명하며 이를 회화적인 방식으로 작품 속에 녹여낸다.

한편 수상자에게는 1,000만 원의 창작지원금과 개인전 전시공간 제공, 홍보, 작가와의 대화 등이 마련된다. 유 작가는 “이번 선배 미술인들의 격려가 작업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오는 11월 개인전을 통해 저만의 예술적 정체성과 조형적 발인을 집약할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오지현 기자



유지원 작 'Trace-Collector'

# 박진선이 부르는 판소리 강산제 수궁가

내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소리·고수 경연대회 대상 수상자 정인성씨가 맡는다.

한편 박진선 소리꾼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를 졸업,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이후 제17회 동종 김

목요열린국악한마당으로 소리꾼 박진선(사진)이 부르는 판소리 강산제 수궁가 ‘토끼탈출’ 공연이 9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판소리 강산제는 조선 후기 8명창에 속하는 서편제의 명창 박유전의 소리를 이어받은 것으로, 서편제의 갈래에 속하나 지금은 판소리 유파의 한 갈래로 자리잡았다.

소리꾼 박진선이 부를 강산제 수궁가는 조상현에게 이어져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인 주소연에게 전승된 수궁가로, 이번 공연에서는 ‘토끼가 별주부를 따라 수궁에 들어가는 대목’부터 ‘토끼가 지혜를 발휘해 수궁에서 빠져나오는 대목’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함께할 고수는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전국 판

연수 전국판소리경연대회 일반부 대상, 빛고을 전국국악경연대회 일반부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향산주소연판소리보존회 이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및 퓨전국악 앙상블 이음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연은 전석 초대로 열리며, 매회 공연은 유튜브 채널 ‘빛고을국악전수관’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관람할 수 있다. 공연과 관련된 더 궁금한 사항은 문화예술과 국악전수관(062-350-45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지현 기자

# 박상철 교수 ‘장수시대 사회문화’ 렉처콘서트

내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강사로 나서는 박상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현재 전남대학교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며, 한국노화학회 회장, 국제노화학회 회장, 과학기술부 노화세포사멸 연구센터 소장, 삼성종합기술원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문화재단이 올해 세 번째 빛고을융합 렉처콘서트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상철 명예교수(사진)를 초청, 9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장수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문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번 렉처콘서트는 ‘코로나19 시대의 장수사회(백세인 미스터리)’를 내용으로 진행되며 ▲백세시대에 즈음한 한국인의 지난 20년 동안 삶의 변화 과정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선진국과 한국사회의 삶 비교 ▲고령사회에서의 사회·문화적 지원체계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 ▲백세시대를 맞아 장수에 필요한 건강과 행복 ▲고령사회에서의 인간 존엄 가치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방안 등을 다룬다.

한편 빛고을융합렉처콘서트는 선착순 100명 이하로 참여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미착용시 관람 불가다. 입장료는 없으며 관람신청은 빛고을시민문화관을 통해 전화(062-670-7926)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오지현 기자

# ACC 대학생 오월 사적지 삽화 공모

오는 30일까지...2개 분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호남지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오월 사적지 삽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ACC는 80년 오월 그날의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적 장소의 가치를 참신하게 표현한 창작 콘텐트를 발굴하기 위해 오월 사적지 삽화를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공모전은 ‘5월, 그날 그곳에는’을 주제로 직

접 손으로 그린 손그림과 디지털 프로그램(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을 활용한 창작물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개인이나 팀(단체)은 ACC 홈페이지(www.acc.go.kr) ‘ACC소식’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응모작과 함께 전자우편(52songa@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교류홍보과(062-601-4264)로 문의하거나 AC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화 기자

www.aroma-life.co.kr

**Aroma Life**  
기능성 속옷의 명가 | (주)아로마라이프

# 기능성 속옷의 名家

쾌적/편한/예쁜/기능성 속옷은 “정말” 있습니다.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5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래깅스  
5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슈에뜨, 루디아

블랙온사 바디 슈트의  
온사 레이스 품평회 1등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1.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5개국 특허 체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2.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3.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 효과

광주본사 | 전문상담 사업 문의: 1588-2219 | 명품관(사적문의): 070-4909-4660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35 V&G빌딩 서울본점 | 전문상담 사업 문의: 02-882-4569 | 명품관(사적문의): 070-7726-1100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